

호남대 오늘 '사랑나눔 행복드림' 한마당

개교 40주년 '호남과 함께 호남대와 함께' 행복세트 전달 명장이 담긴 김치·쌀·김 등 광주·전남·북 복지시설 지원

“호남대학교가 개교 40주년을 맞아 호남 최고의 명문사립대학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호남지역민들께, 보은의 마음을 담아 김치명인의 지도로 만든 건강김치와 쌀, 김 등 지역 농수산물 ‘행복세트’를 드립니다.”

호남대가 개교4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지역 봉사의 일환으로 ‘호남과 함께 호남대와

함께, 2018 사랑나눔 행복드림’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11일 오후 2시 IT스퀘어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박상철 총장직무대리,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전동평 영암군수, 전북 고창북고 전삼식 교장을 비롯한 광주·전남·북 지역 주요 인사들과 호남대 교직원과 학생회,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여한다.

이날 호남대 교직원과 학생, 유학생들은 식품영양학과(학과장 김진모)가 개발한 건강김치 래시피와 조리과학과(학과장 이승익)가 배출한 김치명인인 한도연 광주명인김치협동조합 대표(2007년 졸업), 최경자 찬방 대표(2018년 졸업) 등 김치명인의 6명의 지도로 특별한 김장 김치를 담글 예정이다.

또 전남지역 농어민들이 탐 흘려 수확한 쌀과 김, 김 등 농수산물을 구입해 김치와 함께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행복 꾸러미’를 만들어 광주·전남·북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호남대는 올 한해 광주·전남 대학가

운데 유일하게 교육부의 ‘4차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2018-2022년),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사업’(2018-2019년)에 선정됐으며, ‘자율개선대학’(2019-2021년)에도 선정되는 등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의 글로벌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추진해 온 ‘지방대특성화(CK-1)사업 종합평가 호남·제주권 1위’, ‘2018 광주·전남 취업률 1위’, ‘2019 수시모집 경쟁률 광주·전남 1위’에 오르며 호남 최고의 명문사립대로 자리매김했다.

/김종민 기자



개교 40주년, 호남 최고의 명문사립대로 자리매김한 호남대가 11일 오후 2시 IT스퀘어 강당에서 ‘호남과 함께 호남대와 함께, 2018 사랑나눔 행복드림’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호남대 제공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성과를 선보이는 ‘2018 꿈꾸는 문화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총 12개 팀 참여 인원 139명이 관악, 피아노 독주, 판소리, 댄스, 난타, 합창, 우쿨렐레 연주, 밴드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대 ‘한책 독서퀴즈’ 이벤트 펼친다

21일까지 카카오톡 통해 광주·전남 누구나 참여 가능

올해 ‘광주·전남이 읽고 특 하다(이하 광주·전남 특)’ 사업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전남대학교의 ‘한책 독서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한책 독서퀴즈는 2018 올해의 한책 ‘일의 미래: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오는가’(선대인 지음)를 읽고 주요 키워드를 맞추는 문제로 구성돼 있다.

독서퀴즈는 오는 21일까지 카카오톡 앱에서 ‘전남대학교도서관’을 검색해 친구추가 한 뒤, 1:1 대화창에서 ‘퀴즈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광주·전남 시·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남대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 상품권을 증정한 다. 당첨자는 28일 전남대도서관 홈페이지

를 통해 발표된다.

이명규 전남대 도서관장은 “올해의 한책을 읽고 지역민 누구나 시공간 제한 없이 손쉽게 참여 가능한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한책 독서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민이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는 지난 3월 올해의 한책 선정부터 10월 선대인 작가 초청 한책 특 콘서트, 11월 한책 문학기행, 독서후기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민과 함께 책을 읽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민 기자

죽호·동강학원 등 5개법인 시교육청 경영 평가 ‘우수’

광주시교육청은 최우수 학교법인으로 죽호학원(금호고 외 3교), 우수법원에 동강학원(동신고 외 3교), 동명학원(동명고), 보문학숙(보문고), 정송학원(송덕고)을 선정했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의 기간 중 관찰 31개 학교법인과 64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학교운영, 학교재정 등 3개 평가영역에 20개 평가지표로 서면 및 자체 평가후 현장 확인을 시행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책부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자구노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학교법인 죽호학원은 공정한 신규 교원 임용을 위해 교원위탁채용을 시행하고, 법정부담금 100% 납부 실적 등으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항후 사학기관 경영평가에 주요정책 및 교육과정 등을 반영, 실효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지원 및 제재의 근거로 활용해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투명하고 민주적 학교 경영을 위해 더욱 협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도교육청 전문 학습공동체 활성화 정책 성과

전남 특성하고, 전국 직업계고 교수·학습연구대회 입상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특성하고/마이스터고 교수·학습 연구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18년 전국 특성하고/마이스터고 교수·학습 연구대회’에서 영광공고(교장 임건호)와 여수석유화학고(교장 조영만), 다향고(교장 김선경)가 각각 입상했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직업계고 학교경영 및 교수·학습 방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일반화함으로써 취업중심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전국 특성하고와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열고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많은 학교가 참가했으며, 도교육청에서도 지방대회를 거쳐 5편을 출품해 이 중 3편이 입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수상작은 교수·학습분과와 영광공고(교사 김경호), 여수석유화학고(교사 손상욱, 조미정, 이하안), 학교경영 분과의 다향고(교감 나병후, 교사 안상목)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현실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했고, 그 일환으로 ‘NCS기반 수업혁신단’을 조직해 15개 학교에 지원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특성하고/마이스터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교수·학습 연구와 지속적인 교실수업개선 컨설팅, 직업계고 교실수업개선연구대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회 3개 학교의 수상도 이런 노력의 결과이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직업계고 47개 모두에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 학교에 수업혁신단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손현숙 미래인재과장은 “이번 전국대회 수상으로 특성하고/마이스터고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가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며 “프로젝트 기반 학습 등을 포함한 수업개선에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기자

남부대 ‘이민자 사회통합 어울림’ 행사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 국제협력단(단장 황민규)은 지난 6일 산학관 세미나실에서 제8회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남부대 국제협력단(광주 1거점)과 한국이민재단(중앙거점)이 주최·주관했으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후원해 이뤄졌다.

어울림 한마당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참여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교육과정에서 배운 한국어 능력과 한국사 및 문화에 대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또한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적

극 도모하기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의 효과와 의미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확산의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조 총장을 비롯해 황민규 국제협력단장, 우석환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 김찬기 한국이민재단 국장, 이상준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장, 김삼준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종민 기자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성황

조선대 SW융합교육원

호남유일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인 조선대학교 SW융합교육원(원장 정일용)은 지난 1학기 시범운영에 이어 이번 2학기에 동신여자고등학교(이하 동신여고)와 조대부고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 10일 밝혔다.

〈사진〉 SW융합교육원은 오지훈, 장대원 조교와 컴퓨터공학과 김진혁, 배동규 학생이 ▲블록형 기반의 프로그래밍 교육 ▲4차 산업혁명 관련 SW교육 ▲인성 코딩교육 ▲지무로봇 ▲레고마인드스탐(EV3) ▲코드론 ▲햄스터 로봇 ▲비트 등 다양한 로봇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교육과 ▲C언어 등의 고급 프로그래밍언어 ▲VR ▲AR ▲MR ▲홀로그램 등 평소 학생들이 배우고 싶었던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1회 2시간씩 총 10차시(20시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동신여고 강정희 교사는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해보고 나아가 광주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한 ‘광주 소프트웨어교육 나눔 축제’에도 참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SW융합교육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W융합교육원의 조영주 담당교수는 “고교·대학 연계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 모든 학생들이 만족해하고 실력이 향상됐으며 미래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해주는 학생들이 참 기특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이런 학생들이 있어 동아리지원 프로그램을 고생해서 준비한 보람이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종민 기자



광주대 일자리센터 해외 취업지원 토크콘서트

광주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윤홍상 교수)에서는 지난 6일 ‘해외취업 지원 토크콘서트’를 호심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해외취업토크 콘서트는 영어권 취업처로 미국과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취업과 인턴십 프로그램 등에 관한 채용설명회로 진행됐다.

대학일자리센터 관계자는 “해외취업 토크콘서트 마인드를 펼치고 도전정신을 함양한 인재들이 도전하기에 좋은 기

회가 됐다”며 “해외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 역량을 갖추고 언어 능력이 뒷받침 돼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무하고자 하는 해당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해외취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음악학과(김정아 학과장)와 협연으로 취업하는 해당 국가의 음악연주회를 갖도록 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를 돕는 시간도 가졌다. /김종민 기자

GIST, 이차원광학 필터 배열 기반 소형분광기 개발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 이용...국제 학술지에 게재

GIST(지스트, 총장 문승현)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이흥노 교수 연구팀이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해 이차원 광학 필터 배열 기반 소형 분광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분광기는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로 광학, 환경공학, 생명공학, 식품산업 등 다양한 연구 및 산업 분야에 활용된다. 특히, 소형 분광기는

특정 환경에서만 활용되던 기존 분광기와 달리 다양한 환경에서 물체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팀은 광학 필터 배열 방식의 분광기에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활용해 가시광선·초근적외선 범위의 넓은 파장대역의 빛의 세기를 적은 수의 광학 필터로 측정 가능한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소형 분광기를 설계 및 제작했다.

특정 파장대역의 빛만 감지하는 일반적인 방식의 광학 필터와 달리, 하나의 광학 필터가 여러 파장대역의 빛을 감지하도록 설계·제작했다. 이러한 필터 36개를 이차원 배열로 만들었으며, 이 배열을 CMOS 센서 위에 부착해 500-1천 nm 파장 대역의 빛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소형 분광기를 통해 과일 당도 측정, 피부

상태 진단 등 일반인들도 실제 생활에서 분광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연구의 의미를 밝혔다.

이 교수가 주도하고, 김철순 석박통합과정생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재원으로 도약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성과는 엘스비어(Elsevier)에서 발행하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Optics and Lasers in Engineering’에 지난달 24일 온라인 게재됐다. /김종민 기자

